

1.5°C



GOi EV



GOi EV



GOi EV



GOi EV



GO

1.5°C N° 2
 ISBN 979-11-90397-13-1
 9 791190 397131
 ISSUE: GOi EV
 16,000 KRW
 04080




5.

Come Hell or High Water

by Michael Pinsky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by 마이클 핀스키

Come Hell or High Water

홍수가 지나간 도시의 재해 현장이 아니다. 강 한복판에 줄지어 잠겨 있는 차들은 분명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다. 이미 절반이 물속에 잠겨 움푹달랴할 수 없어 보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차들. 저 명랑한 색깔들을 보니 지금이라도 당장 구하러 가야만 할 것 같다. 이 작품은 영국 북부의 타인강 일대에 설치되어 6주간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작품의 제목 'Come Hell or High Water'는 원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론 이렇게 높아진 수면이 우리를 말 그대로 지옥 같은 곳으로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상기시킨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비주얼 아티스트 마이클 핀스키는 영상, 퍼포먼스, 매핑, 조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창작을 통해 사회문제에 메시지를 던진다. 특히 자동차가 촉발한 도시문제, 대기오염 등의 이슈를 다룬 설치 작품으로 전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